출장결과보고서(모로비리 공

1. 일　　시 : 2022. 9. 13 14:00~16:00
2. 장　　소 : 모로비리 공원 왜가리 등 서식지
3. 내　　용 : 서식지 훼손지 복원 방안 및 소음 • 악취등 민원 조치 방안 자문
4. 자 문 자 : 생태전문가 김창환교수님, 조류전문가 강희영
5. 자문내용
   가. 대상조류 : 왜가리, 중대백로, 황로, 쇠백로 등
   나. 훼손수목 : 곰솔, 아까시나무, 육송, 상수리, 밤나무 등
   다. 조류행태
      - 큰나무인 곰솔, 육송에 둥지가 크고 제일 윗쪽에 위치하면 왜가리와 중대백로
      - 작은나무인 밤나무, 아까시나무에 둥지가 엉성하고 작으면 쇠백로와 황로 거주
      - 왜가리가 제일 처음 거주지 점령(설 이전이나 이후부터 선회하면서 자리잡기) 하고 8월말에 이동함
      - 왜가리 주변으로 백로가 거주지 점령
      - 주진천 합류부가 15km 이내로 10분이면 서식지를 갈 수 있는 입지 조건임
      - 훼손지(서식지)는 양지이며 개방되어 있고 사람이 나타날때 빨리 피할수 있으며 경사진 곳이고, 계곡이 양쪽에 있고, 주진천 합류부가 15km 이내로 10분이면 서식지를 갈 수 있는 입지 조건으로 최고의 서식지임
      - 고사목이 제거되면 입지조건이 좋은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음
      - 집단이동을 한다고 해도 서서히 이루어짐
      - 주로 먹이는 육식성으로 메뚜기, 거미류, 수서곤충이며 한번에 3~4개의 알을 낳으며 비동시성 부화로 2~3일 차이로 부화함
      - 왜가리 등은 생물학적 농축(논밭의 잔류농약 농작물을 먹고 몸에 축적됨)에 의거 갑자기 죽을 수 있음
      - 암수짝짓기의 장식깃으로 인해 깃털이 가루처럼 부서져서 하얗게 날려 방충망이나 빨래를 오염시킬수 있음
      - 하층 식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물고기가 주 먹이이므로 토양이 요산과 인으로 인해 황폐화되어 목초만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
      - 어미가 이소하면서 새끼들에게 서식지를 알려주는 행위를 함
      - 9월 추석까지 다 이소했으며, 지금은 멧비둘기, 오목눈이, 박새, 물까치 등이 거주하고 있음
      - 왜가리등은 가지가 건실한 나무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수종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음

왜가리 관련 민원 발생

□ 현 황

○ 서 식 지 : 나들목공원 서남쪽 소나무 숲 등 3000여평 (현대아파트, 선운프라자)

○ 개 체 수 : 약1~200수 (최근 3년간 생태모니터링 보고서상 평균 개체수는 100수)

○ 서식시기 : 매년 2월부터 9월 (20년 이상 서식)

○ 조 류 : 왜가리, 중대백로, 황로 등

□ 주요민원내용

○ 악취와 소음으로 현대아파트, 선운프라자 거주민과 공원이용객 불편 호소

○ 2024년 민원 상황 : 고창군에 바란다 1회, 전화민원 2회

※ jtbc 기자 취재(2024.4.24)

□ 금후 계획

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왜가리는 민가주변에 서식하고 어미새가 새끼에게 서식지를 알려주는 습성이 있으며 현 나들목공원 서식지가 왜가리가 좋아하는 환경 ※ 2023년 서식지내 고사목 제거했으나, 이소하지 않고 인접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감

○ 5월부터 왜가리와 주변환경에는 영향이 없고 악취저감에 효과가 좋은 광합성균, 고초균, EM을 혼용하여 주1회정도 주기적으로 서식지에 살포